



유튜브 뉴스채널의 '북한원전 건설 의혹' 관련 보도 연구

언론사 채널과 개인채널 뉴스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설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종임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홍주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Research on YouTube as a Journalism Platform

A Relational Analysis of "North Korea Nuclear Build-up Speculation" on Channels Operated by Mainstream News and Individuals*

Jinah Seo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Jongim Lee***

(Kyung Hee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Juhyun Hong****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Despite our lives being completely surrounded by ubiquitous media—platforms supposedly for relaying reliable information—distinguishing between true and false information has in fact become more difficult with the advent of the "post-truth" era. One reason is the proliferation of news or what passes as news on the Internet with the process of content creation, including even sophisticated video production, having become so facile to anyone so inclined. The other reason is that while the rise of digital media has enabled the general public to consume and create seemingly endless content, the same force has also contributed to diminishing and even threatening the role of the press in their duty to be gatekeepers of the truth, as controlling or channeling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rue or false, has become nearly impossible. Thus this research, via content and network analysis, attempted to glean the extent to which such news were being distorted in our current free-for-all digital world. We started by identifying political news about North Korea's alleged nuclear build-up, the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s 2021 Research Fund. (이 연구는 2021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 jas@knou.ac.kr, first author

*** happydayljn@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 joohtssy@kookmin.ac.kr

categorized the host, the main message and the delivery strategy for each specific video uploaded to YouTube, including those by official press and by individuals. By identifying the content germane to the North Korea issue and analyzing the messages contained in the video, we also tried to ascertain the relational dynamics between the primary news sources—by and large, the official press—and various YouTube content. The result confirmed that mainstream media reports were consistently enlarged or embellished upon and even deliberately misconstrued by right-wing cable news and individual YouTubers, which had the further effect of suspicions about North Korea and its intent with regard to nuclear ambition being scattered without proper check or filter all over the Internet. YouTube channels run by individual hosts, in particular, were problematic. They were shown to be not only one-sided but also almost always hewing to opposite poles of politics. Not surprisingly their use of all-or-nothing type of commentaries to bolster their unsubstantiated claims, too, was rampant. In comparison, terrestrial broadcasters' news content were less inflammatory and jaded. It was determined that they tended toward taking a more "neutral" stance. In conclusion, this research was able to ascertain that news reported by mainstream media about controversial or inconclusive matters such as North Korea nuclear build-up are regularly regurgitated and passed on by individuals to represent prejudicial versions of the same stories and highlights the harm that YouTube journalism can pose to the future of both journalism and the public.

Key words: YouTube Journalism, North Korea Nuclear Build-up, Social Media, Political Ideology, News Sources

1. 문제 제기

‘포스트-진실’의 시대라 불리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 플랫폼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실과 거짓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정보를 생산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는 사이 공적 커뮤니케이션, 언론의 역할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위기에 처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포스트 진실’(post-truth)을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리 매킨타이어(Lee McIntyre)는 접두사 포스트(post)는 시간 순서상 진실 이후라는 뜻이 아니라 진실이 무의미할 정도로 ‘퇴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Lee McIntyre, 2018). 김수미(2019)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 데에는 사회 내에 진실, 진짜와 참이 드러나고 유통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저널리즘이 그 역할에 실패했다는 것 역시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았다. 저널리즘이 사회적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인이자 미디어 이용자인 ‘우리들’ 각각은 자신만의 사실과 진실을 찾아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이 경합하였고, 현재는 유튜브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Digital News Report 2019)’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플랫폼과 관련한 변화는 유튜브가 뉴스나 시사 정보 이용 채널로 자리잡은 것이다. “유튜브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관련 동영상 시청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한국은 40%로, 조사 대상 38개국의 평균 26%에 비해 14%나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튜브상에서 뉴스를 시청한다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 이용률이 고르게 나타났다(Digital News Report, 2019;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1~2; 재인용). 또한 한국 응답자들의 44%가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고 답하였고, 동시에 허위정보나 오정보 전달 채널로 유튜브를 가장 우려하는 채널로 답하였다(이소은·박아란, 2020).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뉴스 이용자들이 유튜브 개인 채널의 정보를 이용하지만, 그와 동시에 언론사가 아닌 개인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조사결과도 다르지 않은데,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튜브는 PC에서 53.1%의 점유율, 모바일에서 56.5%의 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네이버, 아프리카, 카카오투브를 합친 점유율보다 3배가량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유튜브와 SNS, OTT 플랫폼, 포털사이트에서 지상파 뉴스나 종합

편성채널, YTN 뉴스를 검색하거나 개인 채널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웅, 2019).

이러한 뉴스 소비 방식이 지속되면서 언론사들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이용자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상황이다. 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YTN News〉 구독자수는 221만 명, 〈KBS News〉 구독자수는 111만 명, 〈JTBC News〉는 152만 명, 〈SBS News〉 구독자수는 123만 명 등으로 주류 언론사들도 유튜브 뉴스 채널을 개설 및 운영함으로써 1백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Nielsen, 2019). 이와 같은 수치들은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전략이 다양해지고, 구독자수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유튜브에서는 정당이나 유명 정치인, 정치평론가들의 시사콘텐츠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에서 보수 정치인들의 활동이 진보 정치인들에 비해 활발해졌으며, 다수의 구독자, 조회수를 확보한 인기 정치 관련 유튜브 방송은 상당수 보수 성향의 전·현직 정치인, 정치평론가, 전직 언론인 등이 진행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양형모·박주연, 2020: 39).

한편, 개인 채널을 통해 생산되는 '허위정보'가 폭넓게 소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편인데, 소셜미디어 상에서 허위정보는 진실한 뉴스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Vosoughi, Roy & Aral, 2018)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확산 주체와 관련해 신, 지앤, 드리스콜, 그리고 바(Shin, Jian, Driscoll, & Bar, 2018)는 거짓 루머가 주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웹사이트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 분야의 루머, 가짜뉴스는 당파적 뉴스 웹사이트에서 새롭게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영향력 있는 트위터 이용자에 의해서 트위터 세계에서 가시성(visibility)을 획득하게 된다(홍주현·설진아·이종임, 2021). 유튜브 정치 채널의 경우, 대다수가 사실보다 특정 사안이나 이미 보도된 뉴스 등에 자신의 주관적 논평이나 의견을 덧붙여 방송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 채널들은 또 대부분 취재 과정이 없고, 사실 전달보다는 편향된 의견 전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유튜브 채널들을 저널리즘 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이 또한 저널리즘 현상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한다. 마정미(2020)는 전통 언론에서도 사실과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주관적 의견과 논평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정치 채널들도 저널리즘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마정미, 2020, 222쪽). 유튜브의 정치·시사채널이 뉴스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저널리즘 현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정치 콘텐츠가 기존 저널리즘과 비교해 형식적, 내용적으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김창숙·민영, 2021, 141쪽).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2021년 초에 정치적, 이념적 쟁점을 일으켰던 뉴스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한 정치뉴스 주제를 중심으로 유튜브 언론사 채널과 개인 채널의 뉴스 보도를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 원전 관련 보도를 연구 주제로 삼은 이유는 2021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발표와 2월 1일 북한 원전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파일 삭제와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사의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보도가 2021년 1월 1일 ~ 2월 28일까지 두 달 사이에 총 1,485건이 검색되었고(최진웅, 2019), 이 중 정치 분야 뉴스로 1,472건이 보도되었기 때문에(www.bigkinds.or.kr) 유튜브상에서도 이와 관련한 뉴스콘텐츠가 많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 보도는 정부 정책과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뉴스, 북한 뉴스의 불확실성,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정부 정책의 영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슈이다. 여기에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을 계획했다는 내용의 의혹 보도가 중앙일보, SBS, TV조선 등에 보도된 이후, 이러한 의혹은 일부 유튜브 채널들에서 사실인 것처럼 배포되었다. 그리고 의혹이 사실로 간주된 배경에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보를 재생산한 개인채널의 영향이 컸다. 일부 개인 유튜브 채널들은 주류 언론사 보도자료를 근거로 ‘북한원전 관련’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하거나 과장되게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결과, 의혹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가까운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는 의제설정 과정과 허위정보의 확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북한 원전 건설 의혹 보도’에 대한 언론사 채널의 뉴스가 개인 채널의 중요한 근거로 어떻게 활용되고, 개인 채널이 갖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뉴스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 저널리즘 지형에서 언론사와 유튜브 개인 채널 간의 연관성과 그 함의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 검토

1)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

뉴스 미디어로서 소셜 미디어의 강점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과 텍스트,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 콘텐츠 형태의 제약 없이 유연하게 생산,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셜 저널리즘은 누구든지 개방된 뉴스 플랫폼에서 뉴스나 정보를 수집, 보도, 분석, 전송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뉴스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제설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설진아, 2017, 145쪽). 이제까지의 전통적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의 뉴스에 관한 대화는 주로 뉴스 소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뉴스 소비와 유통 차원에서 기존 언론의 뉴스콘텐츠에 정보를 더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허미다(Hermida, 2010)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로 인해 저널리즘의 형태가 일상 속에 편재하는 현상이 늘었으며, 뉴스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접하고, 뉴스 관련한 이슈를 수시로 논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양한 소셜 플랫폼 중에서도 최근 유튜브에서 뉴스를 검색하고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플랫폼의 저널리즘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큰 화두가 되었다. 무엇보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은 뉴스나 시사 정보 이용 채널로서 유튜브를 연령대와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55세 이상 연령대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뉴스콘텐츠 이용률이 높은데, 여기에는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의 영향도 두드러진다. 즉 진보나 보수 정치 성향의 이용자들이 중도적 성향의 이용자에 비해 유튜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호·김위근, 2019; Newman et al., 2019).

한편,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을 '저널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양형모·박주연, 2020). 유튜브를 저널리즘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은 유튜브 정치 시사채널을 '기존 저널리즘의 확대이자 강화된 버전으로 간주한다(마정미, 2020; 유용민, 2019). 물론 개인 유튜브 채널들이 사실보다보다는 이미 보도된 사안에 주관적 논평이나 의견을 덧붙여 방송하는데 치우쳐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미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마정미, 2020), 기존 주류 언론에 접근하지 못했거나 만족하지 못한 개인 행동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행동주의적인 저널리즘이 부상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탈경계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유용민, 2019). 유튜브 정치 시사채널은 또한 뉴스 스튜디오 활용, 시사대담 형식 차용 등에서 기존 뉴스와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이용자 역시 특정 사안에 대한 진실성을 판단하는 보완 미디어로서 1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하주용·홍원식·유수정, 2019).

유튜브 플랫폼은 검색과 댓글 달기, 생각과 의견표현을 통해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동영상 생산 및 전달, 공유를 통한 유통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채널을 구독하거나 '좋아요'를 통해 사용자 간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한다(송정은·정원호, 2013). 특히 유튜브의 매체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생성과 전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매체들이 유튜브에 자사의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오세욱, 2019; 정정주·김민정·박한우, 2019, 110-111쪽). 언론사들은 유튜브

상에 뉴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이슈와 뉴스콘텐츠를 검색 및 이용,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튜브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뉴스 정보 채널로서 영향력 있는 저널리즘 플랫폼이 된 것이다.

특히 유튜브 이용자들은 언론사 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뉴스라고 인식할 뿐 아니라, 심층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도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사의 뉴스 보도 채널 활용에 있어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가 선택되는 이유는 뉴스콘텐츠의 확산성과 전파력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이용 주체가 정보생산 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사뿐 아니라 기업, 정치단체, 출처 미상 등 다양한 주체가 생산 주체로서 부상하였다. 또 시민 스스로 비디오를 만들어 게시할 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언론사는 시민이 생산한 콘텐츠를 자사의 뉴스 생산 과정에 인용하기도 한다(최진순, 2012).

현재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는 뉴스 카테고리에는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채널도 뉴스 카테고리에 포함되며, 등록된 콘텐츠의 조회수는 백만 회를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아서 방송뉴스를 시청하지 않아도 개인 채널을 통해 정치 이슈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자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유튜브 뉴스 영역에서 개인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언론사들도 유튜브 채널을 적극 운영 중인데, 언론사들은 유튜브의 라이브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 뉴스 서비스와 함께 시청자와의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류 언론사들은 유튜브 채널 개설이나 라이브 방송 등의 변화를 선택하며, 유튜브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언론사가 유튜브 내에서 개인 채널 구독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언론사가 유튜브 개인채널에서 언급된 내용을 '논란'이라는 타이틀로 그대로 가져다 인용을 하거나 개인 채널이 제공하는 정보의 근거로 전통적 뉴스매체·방송사나 신문사가 선택되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일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기정 '사실화'되는 보도사례들도 빈번해지고 있다.

2) 유튜브 채널의 허위정보 확산 및 북한 뉴스의 확장편향성

최근 들어 유튜브 채널은 정치인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뉴스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인프라로서 루머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 허위 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난립하고, 이념적 갈등과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 대립이 증폭되는 창구로 활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유승현·정영주, 2020). 이러한 현상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기정사실화되는 '허위정보'의 확산문제가 심각함을 반영한다. 포털 중심의 정보 소비,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뉴스 정보 유통

의 중요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뉴스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모든 뉴스의 진위를 가려내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오세욱·김수아, 2016), 뉴스의 원본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김선호·김위근, 2017)는 점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뉴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포털이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유통 과정 중에 반복적으로 재가공될 수밖에 없다. 재가공의 용이함은 유통과정에서 최초 원본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식별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거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만큼 원본 작성자의 신뢰도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환경은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키고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뉴스의 유통에 사람들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엄정훈과 정세훈(2019)은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미국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가짜뉴스 논란사태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통령 조기 탄핵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불확실한(가짜뉴스) 정보가 생산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문제도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다(엄정훈·정세훈, 2019). 정철운(2018)은 유튜브 알고리즘은 확증편향(필터버블)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뤄져 있다고 역설하면서, 이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유튜브의 전략이지만, 공론장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이미 자신의 성향에 맞춰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정치, 사회 관련 분야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은 접하기 어려워지고 극단적인 갈등과 타자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철운, 2018, 173-174쪽).

이충환(2013)은 가짜뉴스 대부분이 기성 언론의 저널리즘 양식을 답습하며, 내용 구성에서도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는데, 가짜뉴스는 생산과 배포에 의도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인된 그리고 서열화된 취재원의 인용, 인용부호의 적절한 사용, 뉴스의 제시형태, 뉴스의 서술 형식 등의 저널리즘 기법을 차용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다. 김미경(2019)은 유튜브 상의 가짜뉴스가 기존 언론보다 더 일탈성을 돋보이게 구성해, 진짜 뉴스보다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 보았다. 표시영과 정지영(2020)은 가짜뉴스가 공공의 이익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고, 미등록 비언론사인 동시에 허위정보를 의도를 가지고 생산 및 배포하는 저널리즘 양식의 가짜뉴스가 이용자로 하여금 진실로 인식하게 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같은 북한 관련 뉴스의 경우는 더 많은 변수와 주장이 유튜브 개인 채널 뉴스를 통해 확산한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북한 관련 뉴스는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경험 및 감정에 기대어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확증 편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양무진, 2020, 92쪽). 유튜브 이전 전통적 언론 보도에서도 북한뉴스가 갖는

확증편향적 특성은 계속 있어왔다. 정채철(2009)은 “남한 방송의 북한 보도 생산자 연구”에서 북한 뉴스는 왜 오류투성이인지, 북한뉴스에 등장하는 뉴스원은 왜 항상 비슷한지, 북한 뉴스는 과연 얼마나 진실한지 등을 분석하였는데,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때는 부정적인 뉴스를 가능한 덜 다루지만, 관계가 소원해지면 기존의 편견을 강화시키는 뉴스에 더 집중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뉴스 생산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대외정책이나 국민정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관련보도 역시 다르지 않다. 일례로 지난 2020년 5월 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CNN이 ‘김 위원장 위중설’을 보도한 이후 전 세계의 수많은 언론이 CNN의 보도를 이어받아 보도했고 순식간에 이 뉴스는 CNN이 가짜뉴스의 근거가 된 뉴스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과 관련된 뉴스는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가짜뉴스로 밝혀진 당일에도 국내 몇몇 일간지에서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기반한 기사를 담은 신문을 발행하였다(정민정, 2020, 5, 2).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 보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예측된다. “북한 원전 건설(추진)” 관련 언론보도는 ‘월성원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서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촉발되었고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과 논평, 의혹 등이 연일 보도된 사건이다(연합뉴스, 2021, 1, 19). 언론사와 일간지의 의혹 보도가 오히려 유튜브 개인 채널 뉴스 정보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의견에 기반을 둔 내용, 때로는 논평조차 붙이지 않는 내용을 내보내는 유튜브 개인채널들이 점점 더 인기를 얻는 양상이다. 따라서 북한 관련 뉴스는 폐쇄적인 북한 내부의 사정을 정확하게 취재하기 어렵다는 점, 국내 정치 정당 간의 이념적 갈등을 촉진하는 주요 주제라는 점, 유튜브 내의 개인 채널을 통해 생산되는 가짜뉴스의 증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보도와 관련해 어떤 미디어가 어떻게 편향되었는지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북한관련 뉴스를 양산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진실한 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분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3)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유튜브 플랫폼 내 이슈 확산과정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북한 관련 뉴스가 유튜브 플랫폼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주류 언론사 및 개인 채널의 뉴스 전달 방식과 인용 출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원전 추진’ 의혹이 유튜브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속성의 뉴스생산자에 의해, 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탐색적 연구로서 이 연구는 유튜브에서 동일한 뉴스가 어떤 양상으로 확산하는지, 확산 주체가 누구인지, 뉴스 생산 주체가 어떤 메시지를 생산하는지,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영향력을 미치는 동영상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유튜브의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 와텐호퍼, 와텐호퍼와 쉐(Watenhofer, Watenhofer & Zhu, 2012)는 유튜브가 다양한 동영상이 확산되는 플랫폼이라면서 동영상 저자의 명성이 높을수록 이 저자의 콘텐츠도 인기가 있다고 밝혔다. 즉 유튜브 동영상의 저자가 누구인지가 이용자들의 동영상 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유튜브 뉴스 채널의 출처를 구분해 출처별로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을 알아보고, 어떤 메시지를 생산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김춘식·홍주현(2020)은 유튜브 채널의 뉴스 생산 과정이 유튜브에서 생산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뉴스 생산 과정을 언론사 채널과 개인 채널로 구분해 가짜뉴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했다. 언론사 채널과 달리 유튜브 개인 채널은 게이트키퍼나 팩트체크 같은 조직 차원의 뉴스 아이템 선정 과정이 없고, 개인 운영자가 아이템 선정과 메시지 작성 등을 자유롭게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뉴스생산 과정의 차이는 이들이 생산하는 뉴스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유튜브 저자에 주목했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에 따르면 뉴스 조직 차원에서 뉴스 조직의 정치적 성향은 이들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언론이 북한 관련 이슈를 다룰 때 조직의 이념적 성향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손영준·홍주현, 2019). 북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다룰 때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르게 프레임 했다. 보수 언론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발생했다고 봤고, 진보 언론은 북핵 문제가 미국의 핵 보유 억제정책으로 야기됐다고 하는 등 양국 간 문제 발생 원인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뉴스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슈를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이 연구는 국내 언론사들과 개인 유튜버 채널들이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북한관련 뉴스를 어떻게 생산하고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 연구문제 1.** 유튜브 뉴스 채널은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 보도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유튜브 개인 채널과 언론사 채널의 뉴스 전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 이슈는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연구문제 4. 유튜브 개인 채널의 이념적 성향은 동영상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을 다룬 뉴스가 유튜브에서 생산 및 확산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과 2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연구문제 3, 4는 네트워크 분석으로 접근하였다(〈table 1〉 참조).

Table 1. Research Design

Research Questions	Methods	Specifications
RQ 1 ‘North Korea Nuclear Build-up’ related YouTube channel types and contents	Content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nel Type(Press/Individual) • File deletion/ File contents/ Speculative reporting/ Political controversies/South-North Korea Summit/Refutation against speculative reporting
RQ 2 Individual channels’ citation methods of Mainstream Ne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tational media/ Delivery methods/Political ideology
RQ 3-4 Influential Videos that have information diffusion impact	Social Network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nel Type • Political inclination • Diffusion agent and Analyses of influential video messages

(2) 분석 대상 이슈 및 유튜브 동영상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유튜브 내에서 짧은 기간에 수많은 허위정보 확산을 가져왔던 “북한 원전건설 추진(북원추)” 의혹 관련 콘텐츠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이유는 이 뉴스가 언론사 보도를 통해 생산 및 배포되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유튜브 내에서 개인 채널을 통해 허위정보 확산이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국내의 경우 북한 관련 뉴스는 정치 성향과 생산 주체에 따라 전달하는 이슈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 원전건설 의혹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수집하기 위해 SBS가 산자부 공무원 기소 관련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1월 28일부터 이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인 3월 31일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정하였으며, 검색어는 ‘북한원전 건설’로 했다. 북한 원전건설 의혹은 1월 28일 SBS가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SBS가 공개한 공소장에는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폴더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적시되었다. 관련 뉴스 영상을 노드엑셀(NodeXL) 프로그램을 통해 유튜브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총 492개의 동영상(검색되었다). 노드 엑셀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적합도(relevance)를 기준으로 500개미만의 동영상이 수집되도록 검색 조건을 정했다. 500개로 제한한 이유는 500개로 동영상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용량이 커서 현실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드엑셀은 검색어를 입력해서 관련된 동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 동영상 수집 원리는 동일한 id가 A와 B 동영상에 댓글(comments)을 남기면 A와 B동영상이 수집되며, 네트워크에서 A와 B는 엮이지 나타난다. 네트워크에서 노드 한 개는 동영상 한 개를 나타낸다. 네트워크의 속성에 따라 엮이지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노드엑셀에서 수집한 유튜브 동영상 간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에서 내향 연결성은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고 특정 동영상을 시청한 것을 나타내며, 외향 연결성은 특정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이용자들이 시청한 동영상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월성 원전 관련 내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자료수집은 되었으나 연구진이 직접 참여한 코딩작업에서 삭제된 유튜브 채널이나 제목과 달리 해당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개인 채널들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3) 유튜브 뉴스 채널 분류 대상과 세부 내용

유튜브 뉴스채널의 유형과 세부내용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채널유형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인지, 주류 언론사인지로 먼저 분류하였고, 언론사 채널은 동영상 뉴스를 제공하는 TV방송사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TV채널/통신사TV, 라디오, 일간지로 대상을 분류했으며, 개인채널은 단독으로 개인이 개설,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로 분류하였다.

① 채널 유형

채널 유형은 개인 채널과 언론사 채널로 구분하였다. 언론사 채널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 TV채널/통신사, 라디오, 일간지, 기타로, 개인 채널은 개인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대상

1) 노드엑셀 프로그램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행위를 네트워크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플리커, 이메일 등의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https://www.smrfoundation.org/nodexl/>)

으로 분류하였다.²⁾

②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 세부 주제

유튜브의 정치뉴스 콘텐츠의 품질을 가늠하기 위해 유튜브 저널리즘의 보도품질을 분석했던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을 일부 참고하였다(김창숙, 민영, 2021). 먼저 내용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를 분석했으며, 해당채널의 관련보도가 사실 혹은 의견 중심인지, 인용여부와 함께 출처를 밝혔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사실정보가 다룰 경우, 어떻게 사실성을 입증했는지를 언론사들의 출처를 추가적으로 분석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된 주요 내용의 주제 분석 유목은 다음과 같다(〈table 2〉 참조).

세부적인 주제유목은 연구자들이 사전조사를 통해 주제 리스트를 만들었고, 내용분석이 진행되면서 새로이 추가되는 주제도 코딩유목에 포함시켰다. 내용분석 유목선정은 김성태·이창호(2007)의 공적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분석 유목과 조작적 정의를 참고하였으며, 기사의 주제와 사실성 입증기제 유목으로 인용여부와 취재원 유형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예비 분석과정에서 제목과 해시태그에 많이 언급된 보도내용(주제)를 파악하였고, 분석 대상 동영상 전체를 보면서 주요하게 언급된 세부 내용을 7개의 주제로 범주화시켰다. 주제유목은 ‘파일 삭제에 초점을 둔 보도’, ‘삭제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보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제기’ 보도, ‘정쟁’, ‘남북정상회담’, ‘의혹제기 반박’, 그 외에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된 뉴스도 검색되었다. 월성 원전 폐쇄 관련 뉴스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지상파는 KBS, MBC, SBS 지상파 채널이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채널을, 종합편성채널은 TV조선, MBN, 채널A, JTBC이다. 뉴스전문TV/통신사는 YTN과 연합뉴스이며, 라디오는 CBS, TBS 등 라디오 전문 채널의 유튜브 채널이다. 유튜브 개인뉴스채널은 진성호TV, 도람뽀, 김태우TV, 최병목의 FACT, 빨간아재, 시사건건, 정치일학, Media VOP 등의 개인이 운영하는 시사/뉴스채널들이다.

Table 2. Categories of Main Content Analysis

Subject	Main Content
Reporting of file deletion	Content of lawsuits, "deletion of 530 files", deletion of audited materials and files
Specific content of deleted files	List of files found, North Korea nuclear buildup file contents, 60pohjois
Speculative reporting of North Korea nuclear build up	Information on North Korea area nuclear buildup proposals and Assertions that the North Korea nuclear buildup wa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Political controversies	Anti-patriotic acts, Maneuvering operation related to North Korea, legal action, Ideological debates
South North Korea Summit and emphasis on USB	Delivery of USB during the 2018 South North Korea Summit
Refutation of speculative reporting	Internal documents, Criticisms of Park Geun Hye and Kim Jong In's Remarks
Etcetera	Refutation of Wolsung Nuclear sites, Closing of Nuclear sites by the direction of the Blue House, etc.

③ 인용 여부 및 인용 자료 출처

개인 채널이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인용 여부와 출처 명시, 인용 매체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유튜브 동영상 내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매체를 '1차 인용 매체'로, 다음으로 많이 인용한 매체를 '2차 인용매체'로 선정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용 여부는 ① 인용했다, ② 인용하지 않았다고 측정했으며, 인용했을 경우 자료 출처를 ① 밝힘, ② 밝히지 않음, ③ 일부 출처 밝힘으로 구분하였고, 인용한 매체 유형은 ① 지상파, ② 종편, ③ 뉴스전문 TV/통신사, ④ 일간지, ⑤ 해외언론사, ⑥ 개인 의견, ⑦ 정부보고서, ⑧ 댓글 등으로 구분해 복수코딩을 실시하였다.

④ 뉴스 정보의 사실성 입증기제

사실 대 의견 중심의 콘텐츠는 발화자(진행자, 유튜버 등)이 어떠한 유형의 정보를 주되게 다루었는지를 지칭한다(김창숙·민영, 2021, 144쪽). 개인 유튜버 채널의 의견전달 방식은 ① 사실 전달, ② 사실+의견(추측) 전달, ③ 의견(주장) 전달 등으로 구분했는데, '사실 전달'은 언론 보도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사실+의견(추측)은 언론보도나 정부 보고서 등 권위있는 주체가 생산한 자료를 일부 인용하고, 개인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다. 의견(주장) 전달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단정한 정보를 의미한다. 즉, 사실보도란 유튜브 방송내용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6차 원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사건이나 관계자들의 코멘트 등을 포함하며, 정보에 대한 설명이 가감 없이 압축해서 전달되는 경우로 분류하였고, 의견(주장) 전달은 유튜브 진행자의 주관적

나 개인적 견해 또는 개인적 색깔이 분명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김왕기·강형철, 2006).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적 내용을 전달할 경우, '사실전달 중심'으로 분류했고, 사실을 토대로 개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을 경우, '사실+의견(추측포함)'으로, 주로 발화자의 의견 혹은 주장을 전달한 경우는 '의견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⑤ 정치적 성향

게링(Gerring, 1997)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가치와 신념체계를 이념(ideology)의 핵심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념은 종종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설명된다(강원택, 2005). 그러나 보수와 진보 역시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보수와 진보는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체제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규정되는 상대적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최석만·국민호, 박태진·한규석, 1990).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논의는 좌파와 우파의 개념과 결부되어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오늘날 우파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를,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인 좌파는 기존의 지배적인 이념체제와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적 체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좌파가 빠른 변혁을 통해 사회의 총체적인 관계를 이성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진보적 사고와 연결되어 있어서(김경미, 2009), 보수와 진보가 좌파와 우파의 개념과 결합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김경희·노기영, 2011, 364-365쪽).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현재 우리 사회체제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중도의 개념을 적용해 유튜브 채널의 정보가 갖는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고자 한다.

정치적 성향은 ① 보수, ② 중도, ③ 진보, ④ 알 수 없음으로 구분했다. 개인 채널의 정치적 성향은 개인 채널 운영자의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 예를 들면, 여당이나 야당 출신 정치인처럼 소속 정당으로 알 수 있는 경우 그대로 따랐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업로드한 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정치적 성향을 추정했다. 개인 정보나 동영상에 근거로 알 수 없을 때에는 '알 수 없음'으로 분류했다.

(4) 코딩절차 및 코더간 신뢰도 산출

노드엑셀을 통해 수집한 492개의 동영상이 분석 대상에 적합한지 데이터클리닝 과정을 통해 1차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분석 단위는 동영상 한 개이며, 한 채널에서 업로드한 여러 개의 동영상이 수집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전체 유목을 조정한 후 본격적인 코딩 전, 주제와 전달방식의 유형을 선정하는 예비조사를 거쳐 분석 유목을 수정한 후 전체 코딩수의 약 10%인 50여 건의 유

튜브 채널 동영상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사전분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분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체 동영상상 492개를 연구자들이 코딩했다. 492개의 동영상상 중에서 주제와 관련성이 낮고 다른 동영상상과 상호작용이 없는 개인 채널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64개의 동영상상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작적 정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용분석의 코더 간 신뢰도는 홀스티 계수로 측정했으며, 그 값은 채널 유형(0.91), 세부 내용(0.83), 인용 여부(0.81), 인용 매체(0.78), 정치적 성향(0.93) 등 0.78에서 0.93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동영상상의 확산과정과 동영상상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노드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노드의 영향력은 내향 연결 중심성, 외향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값으로 측정했다. 내향 연결 중심성은 노드로 향하는 연결 선 개수의 합이고, 외향 연결 중심성은 노드로부터 밖으로 향하는 연결 선 개수의 합이다. 내향 연결 중심성이 높다면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를 많이 찾는다라는 의미이고, 외향 연결 중심성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다라고 볼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노드와 직접 연결된 최단 거리의 값을 평균 낸 것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으면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Hansen, Shneiderman & Smith, 2011).

4. 연구 결과

1)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다룬 유튜브 채널 유형과 주요 내용분석 결과

북한 관련 보도는 언론사들이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는 선택과정의 변화에 기인하는데, 북한 관련 보도의 경우, 꾸준히 보도되기보다 특정 쟁점이 제기되었을 때 급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주창윤, 2000, 7쪽). 홍주현과 손영춘(2017)은 2016년 정부의 사드미사일 배치 시기에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사드 미사일 관련 논란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 사실 확인이나 과학적 검증보다는 각자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사드 루머 이슈를 다뤘다고 분석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뉴스 정보도 다르지 않았는데,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의혹을 보도한 채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3>과 같다. 분석 결과, 전체 364개 동영상상 채널 중 개인 채널이 155개(42.6%)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편성채널은 74개(20.3%), 뉴스전문TV 및 통신사가 66개(18.1%), 지상파TV 47개(12.9%) 일간지 및 주간지 12(3.3%), 라디오와 기타가 각각 5개(1.4%)로 나타났다. 언론사 및 개인 채널들이 보도한 주요 내용을 1, 2 순위로

복수 코딩을 실시한 결과, 1순위로는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제기”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28.6%), 다음으로 “삭제한 파일내용” 보도(21.4%), “정쟁관련 내용” 보도(17.0%)와 “의혹반박”(13.5%)의 순서로 많이 보도되었다((table 4)). 2순위의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이 참여하게 대립했던 북풍공작, 이적행위 등 색깔론 논쟁이 주를 이뤘던 “정쟁관련 내용”보도가 46개 (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위로는 “북한원전 건설 추진의혹제기”보도가 38개(21.5%), “의혹제기 반박”을 다룬 뉴스정보가 29개(16.4%), “삭제한 파일내용” 보도는 27개(15.2%)로 나타났다.

Table 3. Frequency of Channel Type

Media Entity	Number	%
Terrestrial TV	47	12.9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74	20.3
News Agency	66	18.1
individuals	155	42.6
Dailies/Weeklies	12	3.3
Radio	5	1.4
Etcetera.	5	1.4
Sum	364	100.0

Table 4. Frequency of Primary/Secondary Contents

Topics	Primary Content		Secondary Content	
	Number	%	Number	%
Speculative reporting on North Korea Nuclear Buildup	104	28.6	38	21.5
Content of deleted files	78	21.4	27	15.2
Political controversies	62	17.0	46	26.0
Refutations against speculations	49	13.5	29	16.4
Deletion of files	27	7.4	16	9.0
USB of South North Korea Summit	24	6.6	19	10.7
Etcetera	17	4.7	1	.6
Not-relevant	3	.8	1	.6
Sum	364	100.0	177	100.0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제기” 관련 뉴스 정보의 경우, 유튜브 개인 채널이 가장 많은 정보를 생산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 뉴스의 경우, SBS가 가장 먼저 관련 보도를 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종합 편성채널과 개인 채널은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뉴스 정보를 가장 많이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저널리즘’이 큰 관심을 받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 내에서 생산되는 뉴스 정보가 기존 언론사 보도보다 이용자들의 더 많은 주목을 받는 현상이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제기’ 보도과정에서도 나타났다.

Table 5. Cross Analysis of Channel Types and Main Contents

		File deletion	Reports of deleted files	Speculations of NK nuclear buildup	Political controversies	USB of South North Summit	Internal documents review	Etcetera	Not relevant
Terrestrial TV	N	8	23	5	15	3	16	1	0
	(%)	(17.0)	(48.9)	(10.6)	(31.9)	(6.4)	(34.0)	(2.1)	(0.0)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N	7	27	28	23	10	17	3	0
	(%)	(9.5)	(36.5)	(37.8)	(31.1)	(13.5)	(23.0)	(4.1)	(0.0)
News agencies	N	5	16	6	32	8	22	1	0
	(%)	(7.6)	(24.2)	(9.1)	(48.5)	(12.1)	(33.3)	(1.5)	(0.0)
Individual	N	23	38	91	32	19	17	13	3
	(%)	(14.8)	(24.5)	(58.7)	(20.6)	(12.3)	(11.0)	(8.4)	(1.9)
Dailies/weeklies	N	0	1	7	4	1	4	0	0
	(%)	(0.0)	(8.3)	(58.3)	(33.3)	(8.3)	(33.3)	(0.0)	(0.0)
Radio	N	0	0	2	1	2	1	0	0
	(%)	(0.0)	(0.0)	(40.0)	(20.0)	(40.0)	(20.0)	(0.0)	(0.0)
Etcetera	N	0	0	3	1	0	1	0	1
	(%)	(0.0)	(0.0)	(60.0)	(20.0)	(0.0)	(20.0)	(0.0)	(20.0)
Sum		43	105	142	108	43	78	18	4

먼저, 지상파채널의 경우 “삭제한 파일내용” 보도가 23개(48.9%)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편성채널의 경우에는 ‘북한원전건설 추진 의혹제기’ 관련 보도가 28개(37.8%), 통신사(연합뉴스)와 뉴스전문TV(YTN)의 경우는 ‘정쟁관련 내용’ 보도가 32개(48.5%)로 청와대와 야당,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널의 경우는 ‘북한원전 건설추진 의혹제기’ 내용이 91개(58.7%)로 가장 많은 정보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북한 관련 보도의 양이 국내 언론사 채널보다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생산한 정보가 더 많다는 점과 종합편성채널과 개인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보도한 뉴스 주제가 일치한다는 점은 저널리즘 플랫폼으로써 유튜브상에서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때로는 경쟁 채널이기도 하지만, 정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중을 설득하는데, 비슷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인 채널들의 언론 보도 인용 방식 및 인용 출처 분석 결과

155개의 유튜브 개인 채널들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제기’ 내용 전달에 있어 언론 보도를 어느 정도 인용하고 있으며, 출처를 명시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 채널의 59.4%(92개)가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를 밝힌 채널들은 31%(48개)였고, 일부 출처를 명시한 개인 채널은 19.4%(30개) 그리고 49.7%(77개)는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채널 뉴스 정보 중 인용 매체 노출 여부를 조사해, 1차, 2차인용 매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간지 인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순위로는 일간지(41.0%) > 지상파TV(26%) > 개인채널(17%) > 종합편성채널(10%) 순이었으며, 매우 드문 사례로서 해외언론사와 정부보고서도 등장하였다. 많이 인용된 일간지로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닷컴, 한국경제 등이 있었으며, 한겨레, 아사히 신문 등도 인용되었다. 보수채널의 경우에는 특히 일간지를 인용한 채널들이 6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상파TV 뉴스를 인용한 채널이 25%로 나타났다.

Table 6. Citations by YouTube's Individual Channels

	Primary cited media	Secondary cited media
	Number	Number
Terrestrial TV	26	0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10	2
News agencies	1	3
Dailies	41	19
Foreign press	2	1
Individuals	17	1
Government reports	3	0
User comments	0	1
Sum	100	27

온라인 환경에서 등장하는 뉴스 규범이나 가치가 과연 새로운 현상인지에 관해 분석한 연구들이 많은데, 현재 인터넷을 통해 생산, 유통되는 기사는 뉴스 가치나 서술방식에서 이전의 타블로이드 뉴스와 상당 부분 연속성을 가진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임영호·김은미·김경모·김예란, 2008). 이러한 측면에서 유튜브 개인 뉴스 채널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개인 채널들이 뉴스 정보의 출처로서 일간지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 타블로이드의 뉴스 속성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종합편성채널과 유튜브 개인 채널이 비슷한 주제의 뉴스정보를 많이 생산하고 있었지만, 유튜브의 개인 채널 뉴스 정보는 일간지를 자주 인용하였고, 지상파 뉴스도 적지 않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 외에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개인 채널도 적지 않았는데, 정파성,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뉴스 정보의 생산이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 개인 채널이 생산한 정보의 주요 세부 내용별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1차, 2차 주요 보도내용 가운데 '북한 원전 추진 의혹제기' 보도내용이 42.6%(66개)와 30.9(25개)%로 가장 많이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sults of Primary and Secondary Contents Reported by Individual Channels

Topics	Primary Content	Secondary Content
	Number(%)	Number(%)
File deletion	11(7.1)	12(14.8)
Contents of deleted file	29(18.7)	9(11.1)
Speculative reporting on North Korea nuclear buildup	66(42.6)	25(30.9)
Political contraversies	12(7.7)	20(24.7)
USB of South North Summit	10(6.5)	9(11.1)
Refutation against speculative reporting	14(9.0)	3(3.7)
Etc	12(7.7)	1(1.2)
Not relevant	1(0.6)	2(2.5)
Sum	155(100.0)	81(100.0)

유튜브 개인 채널들의 전달 방식은 주장(의견)이 6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부 사실 전달에 추측성 의견을 비롯해 부분적인 해석이 담긴 채널들이 32.3%로, 사실 전달로만 이뤄진 채널들은 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인 채널의 정치 성향은 보수가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보는 11.6%, 중도성향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전달 방식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도한 결과, 보수 채널들의 경우, 근거 제시보다 주장 중심의 뉴스 정보 빈도가 65.1%(84개)를 차지했으며, 사실 전달만을 한 채널은 1.6%(2개)에 불과하였다. 진보적 성향의 채널은 전체 개수가 7개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주장전달이 대부분이었다.

Table 8. Cross Analysis of Content Delivery Methods by Political Inclinations(N=155)

Political Inclination		Fact	Fact, Guessing & Opinion	Assertions
Conservative	N	2	43	84
	(%)	(1.6)	(33.3)	(65.1)
Moderate	N	4	2	1
	(%)	(57.1)	(28.6)	(14.3)
Liberal	N	3	4	11
	(%)	(16.7)	(22.2)	(61.1)
Unknown	N	0	1	0
	(%)		(100.0)	
Sum(155)		9 (5.8)	50 (32.3)	96 (61.9)

$\chi^2(p) = 44.96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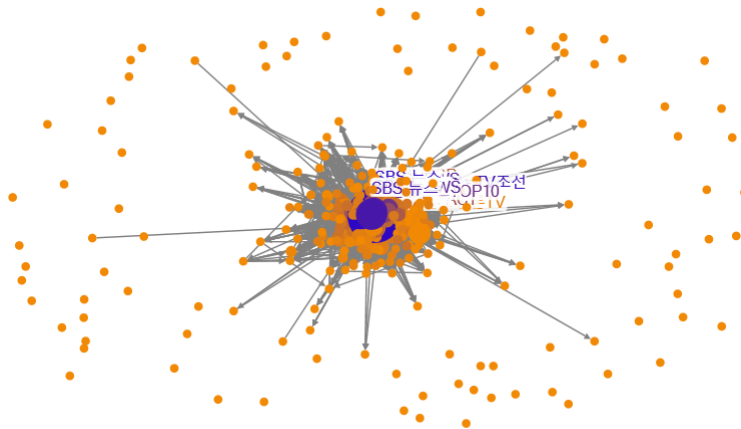
*** = $p < 0.001$

유튜브 개인 채널들의 뉴스 정보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실보도와 주장이 구분되지 않았

다. 빈도의 차이만 나타날 뿐,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 정보는 사실 확인이나 전문가의 인터뷰 등 정보원의 전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북한 관련 뉴스보도에서 계속 반복되어온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에 기대어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확증편향의 특징을 보였다. 여기에 개인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들 간의 댓글로 형성되는 ‘환호와 분노’ 등의 감정은 내용의 객관성과 상관없이 뉴스 정보를 ‘진실’로 믿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이고 분노에 가까운 개인 채널들의 정보 생산은 결국 국민으로서 유튜브 이용자들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불신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북한 원전 의혹 관련 유튜브 뉴스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노드 수는 492개이고, 496,846의 연결이 나타났다. <Figure 1>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중앙에 매개 중심성값이 큰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다른 동영상과 연결이 없는 개인 채널의 동영상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Figure 1. Result of Network Analysis of Youtube Videos on North Korea Nuclear Buildup³⁾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 상위 10개를 살펴본 결과, SBS 뉴스와 MBC 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수 종편 채널과 보수 성향의 개인 채널이 상위를 차지했다. 2021년 1월 28일, 북한 원전

3)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외향 중심성 값이 크고, 보라색일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매개 중심성 1000 이상인 경우만 저자 표시

건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상파TV 중 SBS의 뉴스 동영상이 70여 만 건으로 조회 수가 가장 높았으며, 매개 중심성도 1661.804로 높았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대한민국 원전은 폐기하고 북한에?!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행위? 원전논란 정리’라는 타이틀로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보도했다. 개인채널의 경우 진성호 방송도 ‘긴급, 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 문제를 다뤘고, 도람뿌 등 보수 성향의 채널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슈의 속성상 진보 채널보다는 현 정권의 정책에 반대 입장에 있는 보수 채널이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을 비판하고 쟁점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 짐작된다. 지상파 동영상 중에서는 SBS의 원전 파일 삭제를 다룬 동영상이 이용자의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고, MBC 뉴스의 경우 야당의 이적 행위 언급과 청와대의 북풍 공작 갈등을 다룬 동영상이 높은 주목을 받았다(〈Table 9〉 참조).

Table 9. Top 11 Influential YouTube News Videos

Author	Title	Views	Comments	Likes	Dislikes
SBS NEWS	(Full Video) Blue House report documents and deletion of proposals for North Korea nuclear buildup	702,692	9417	27,197	1183
TVChosun	Get rid of South Korea nuclear arsenal and North Korea?	532,937	3536	23,515	1899
MBC NEWS	North Korea nuclear buildup, anti-patriotic action?	99,237	3700	1,502	127
SBS NEWS	530 Deletions of Wolsung nuclear reports	239,271	1928	9,283	268
Jin Sung Ho Channel	Urgent! Moon Jae In, TVChosun exposee! What's inside the USB memory stick?	401,978	2630	31,973	289
Jin Sung Ho Channel	Urgent! Revealing Moon Jae In's remarks on...New chapter of North Korea nuclear buildup	230,458	1145	21,003	178
Channel A NEWS	File name "Poyoyis"North Korea nuclear buildup	121,557	1658	4,166	75
Jin Sung Ho Channel	Shocking news! Prosecutors, finding of deleted nuclear files Moon Jae In's in trouble!	200,813	1400	16,865	114
Kim Tae Woo TV	Top 5 Scoops on North Korea nuclear buildup and surveillance of civil groups	84,950	652	15,917	56
Doramppoo	Secret progress of nuclear buildup in North Korea.	137,952	2008	14,798	143
SBS NEWS	Blue House report on deletion of proposals of North Korean nuclear buildup	158,916	3475	5,550	80

〈Table 9〉에서 나타나듯이, 유튜브에서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 영향력 있는 동영상의 경우, 지상파와 개인 채널의 관련 뉴스 제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 ‘이적행위’, ‘북풍 공작’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개인 채널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부정과 USB전달과 관련해 근거없는 주장을 담은 정보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유튜브 뉴스채널이 생산하는 정보에 대한

문제는 주로 보수 극우 성향의 개인 채널을 비난해왔지만, 기존 언론사의 보도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주류 언론사의 보도 역시 자극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고 제목을 더 자극적으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지상파보다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동영상 출처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논란을 다루는데 동영상의 출처는 이슈에 대한 시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영상 출처별로 어떤 이슈를 생산하는지,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은 무엇인지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동영상의 출처를 개인과 언론사로 구분했고, 언론사는 지상파, 종편, 통신사, 라디오, 일간지, 기타로 세분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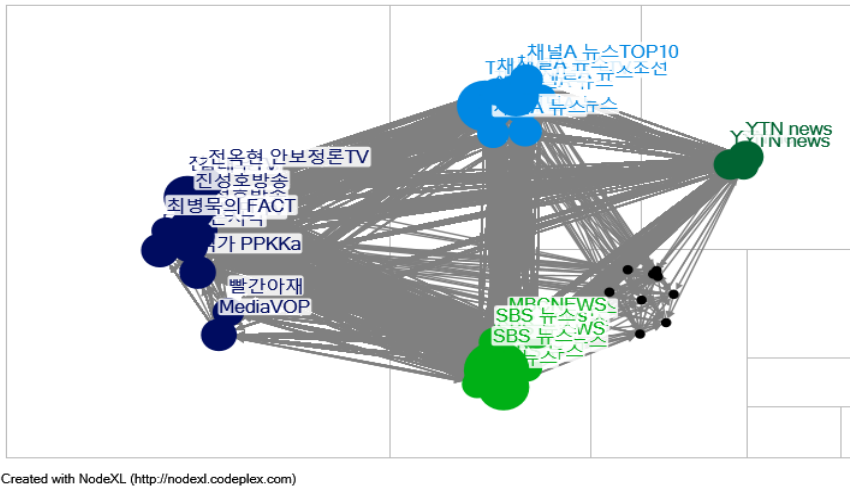


Figure 2. Result of Network Analysis on Youtube's Videos on Speculations of North Korea Nuclear Buildup

〈Figure 2〉의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 왼쪽의 파란색 동영상들이 개인 채널이고, 가운데 위쪽의 동영상들은 종편채널, 가운데 아래쪽이 지상파 채널이다. 오른쪽 초록색 영상들은 통신사 채널이다. 이 그래프는 매개중심성 1,000이상인 경우만 나타난 그래프인데, 라디오와 일간지 채널의 동영상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영상은 없어 그래프에서 빈 칸으로 표시됐다. 개인 채널 중에서는 진성호 방송, 전우현의 안보정론, 빨간 아재 등 보수 성향의 채널들이 많고, 종편 채널의 동영상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채널 중에서는 SBS의 동영상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및 뉴스전문TV 채널 중에서는

대부분 YTN 동영상의 이용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네트워크를 보면, 개인 보수 채널과 SBS, 개인 보수 채널과 종편 보수 채널 간의 연결이 많아 이 이슈와 관련해 이용자들은 개인 채널과 언론사 채널을 같이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 YTN의 매개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YTN 동영상과 개인 채널, 종편, SBS와 고르게 연결이 나타나 사실을 전달하는 채널로서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출처별로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이 무엇인지 분석했고, 그 결과를 <table 10>에 제시했다. 지상파 채널은 SBS뉴스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 폴더 삭제, 북한 원전 건설 추진문건 공개를 보도한 영상과 MBC 뉴스의 청와대와 야당의 논란을 다룬 동영상의 매개 중심성이 높았다. 종편 채널 중에서는 보수 성향인 TV조선의 북한원전 추진을 이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동영상의 매개 중심성이 가장 컸고, 역시 보수 성향인 채널A의 동영상이 '이적행위', '신내림', '삭제 미스터리' 등의 타이틀로 매개 중심성과 조회 수가 높게 나타났다. 통신사 채널 동영상 중에서도 '이적행위 vs 북풍공작' 논란을 다룬 동영상이 이용자의 관심을 끌었다. 개인 채널도 '충격', '몰래 원전 추진', '문건 후폭풍' 등 북한 원전건설 논란 이슈를 감정적인 단어와 느낌표를 사용해 전달했다.

Table 10. Influential Videos by Channel Type and Author

Channel Type	Author	Title	Betweenness Centrality	Out-Centrality	In-Centrality	Views
Terrestrial TV	SBS NEWS	Blue House report on deletion of proposal of North Korea nuclear buildup	1661.804	297	0	158,916
	SBS NEWS	Revealing of North Korea nuclear buildup documents'	1395.178	229	40	173,271
	SBS NEWS	Pohjois NK nuclear buildup: File deletion	1353.929	280	1	220,559
	SBS NEWS	Report on North Korea nuclear buildup: closed without additional examination	1164.789	220	26	77,628
	MBC NEWS	Anti-patriotic behavior of North Korea nuclear buildup: maneuvering act using North Korea	1105.911	225	8	41,451
Comprehensive program channel	TV CHOSUN	Closing down of South Korean nuclear sites and North Korea?	4001.224	308	19	532,937
	Channel A NEWS	File name:pohjois, tried to support NK nuclear buildup?	2612.858	305	7	121,557
	Channel A NEWS	Mystery of file deletion... North Kroean nuclear...	1318.425	242	11	142,112
	Channel A NEWS	Opposing party... Anti-patriotic behavior versus Blue House's assertion on maneuvering act using North Korea	1307.863	122	149	94,892
	Channel A NEWS	Strongly closing down South Korean nuclear sites while supporting North Korean nuclear buildup?	1299.976	237	39	110,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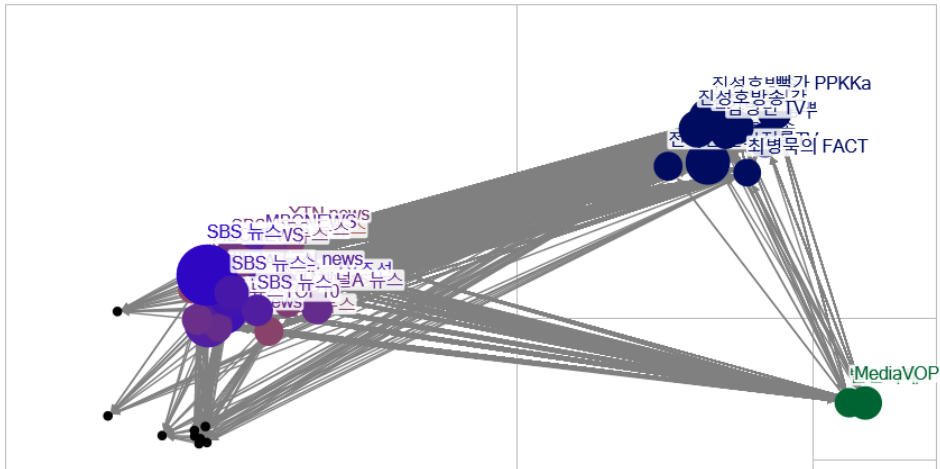
Channel Type	Author	Title	Betweenness Centrality	Out-Centrality	In-Centrality	Views
News Agencies	YTN news	After the shock of revealing NK nuclear documents... Anti-patriotic behavior versus maneuvering act using North Korea	1496.626	264	17	147,518
	YTN news	Speculation of "maneuvering North Korea for elections" vs. "Blue Houses" disturbance of national foundation"	1321.935	202	66	92,550
	YTN news	Kim Jong In and NK anti-patriotic act	1008.351	197	62	18,081
	YTN news	Internal documents page 6	962.664	193	57	104,480
	Yonhap TV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reveals NK nuclear buildup original documents	798.867	136	103	145,423
Individuals	Jin Sung Ho Channel	Urgent! Moon Jae In, TVChosun exposee!What's inside the USB memory stick?	3030.064	47	236	401,978
	Jin Sung Ho Channel	Urgent! Revealing Moon Jae In's remarks on...New chapter of North Korea nuclear buildup	2816.937	11	246	230,458
	Jin Sung Ho Channel	Shocking news! Prosecutors, finding of deleted nuclear files Moon Jae In's in trouble!	1954.320	240	23	200813
	Kim Tae Woo TV	Top 5 Scoops on North Korea nuclear buildup and surveillance of civil groups	1816.330	145	109	84950
	Dorampoo	Secret progress of nuclear buildup in North Korea.	1712.567	104	151	137952

출처별 영향력 있는 동영상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통신사, 개인 채널 모두 '정부의 북한지원은 이적행위'라는 논리로 뉴스 정보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이적행위', '간첩행위'로 만들어 처벌하게 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국내의 현실(전혜인, 2021, 5, 11)처럼, 유튜브 내에서 유통되는 북한 관련 뉴스 정보에 적용되는 이분법적 틀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5) 정치성향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유튜브 채널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이슈를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지 정치적 성향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했다. <Figure 3>을 보면, 왼쪽은 중립적 성향이고, 오른쪽 위는 보수 성향, 오른쪽 아래는 진보 성향 채널의 동영상을 나타낸다. 중립적인 채널 중에서 매개중심성이 높은 동영상은 언론사 채널이 대부분이다. 중편 채널을 제외한 개인 채널 중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 영향력이 있는 채널을 보면, 보수 채널은 진성호방송과 최병목의 FACT가 있다. 개인 채널 중에서

진보적인 채널은 MEDIA VOP와 빨간 아재의 매개 중심성이 높았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 논란과 관련하여 진보 채널보다는 보수 채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동영상이 많았고, 이들 영상들이 보수적인 성향의 이용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의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분석 대상 개인 채널 동영상의 대부분이 보수적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Figure 3. Results of Network Analysis of Youtube Videos Regarding North Korea Nuclear Buildup by Political Inclination

〈Figure 3〉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원전 건설 의혹 보도의 경우, 유튜브 뉴스 채널이 생산하는 정보가 이분법적이고 정파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상파 뉴스가 비교적 ‘중립적’ 입장의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뉴스 채널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이념 구분이 극우 성향이 강한 유튜브 개인 채널이나 자극적 보도 빈도가 높은 종합편성채널과 비교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는 분명하다. 북한 관련한 뉴스, 혹은 북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루는 뉴스의 경우, 보다 심층적인 뉴스보도 프레임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able 11〉는 개인 채널의 정치적 성향별로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보수적 성향의 채널은 진성호 방송의 동영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 값도 크고, 조회 수도 20만을 넘겼다.⁴⁾ 개인 채널의 동영상들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하여

4) 이 방송은 느낌표와 물음표를 활용했고, 긴급!, 충격! 과 같은 단어로 이용자의 주목을 끌었다. ‘문제가 큰일났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루기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찬성, 반대의 주장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원전 건설 의혹 관련해서 유튜브에서는 개인 채널을 통해 사실보다는 주장 중심의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개인 채널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Table 11. Most Influential Individual Channels by Political Inclination

Political Inclination	Author	Title	Betweenness Centrality	Out-Centrality	In-Centrality	Views
Conservative	Jin Sung Ho Channel	Urgent! Moon Jae In, TVChosun exposee!What's inside the USB memory stick?	3030.064	47	286	401,978
	Jin Sung Ho Channel	Urgent! Revealing Moon Jae In's remarks on...New chapter of North Korea nuclear buildup	2816.937	11	246	230,458
	Jin Sung Ho Channel	Shocking news! Prosecutors, finding of deleted nuclear files Moon Jae In's in trouble!	1954.320	240	23	200,813
	Kim Tae Woo TV	Top 5 Scoops on North Korea nuclear buildup and surveillance of civil groups	1816.330	145	109	84,950
	Doramppoo	Secret progress of nuclear buildup in North Korea.	1712.567	104	151	137,952
Liberal	MediaVOP	Jung Se Gyoon's accusation that Tae Young Ho has illogical assertions regarding NK nuclear buildup	1541.104	104	51	148,577
	Red Uncle	There is no "origin" in nuclear buildup speculations...	1159.380	83	72	59,871
	Each Current Affairs Case	Self-defeating act by Kim Jong In for North Korea maneuvering! NK nuclear buildup was MB's project	804.335	52	76	50,597
	News Chief	Deleted NK nuclear buildup documents was made up by Park Geun Hye's administration!'	732.371	78	95	121,224
	Political Figures	North Korea maneuvering by People's Power Party! Deleted files are Park Geun Hye's?	677.888	38	93	177,399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이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렸고, 'USB 메모리에 뭐가 들었나'는 헤드라인으로 이용자의 궁금증에 동조했으며, '문재인 사전지시 발언'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산했다. 도람뿌 채널의 동영상도 '물래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북한 원전 추진을 기정 사실화했다. 이에 비해 진보 채널의 동영상은 야당의 공격을 '황당 논리'로 반박했으며, 북한원전 건설을 박근혜 정권 때 추진, MB 때 프로젝트' 등 역시 근거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었다.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정치뉴스를 생산 및 유통시키는 유튜브 개인 채널들과 언론사 간 역학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채널별 인용한 언론사 및 출처 제시 여부, 전달 방식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보 확산의 주체 및 영향력 있는 동영상 살펴보기 위해 정치적 성향별 확산 주체와 매개 중심성이 높은 영향력 있는 동영상 메시지를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내용분석 결과, 유튜브 채널별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 다른 주요 주체들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지상파TV는 '삭제된 파일 내용'을 가장 많이 보도한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의혹제기 보도'와 '삭제된 파일 내용' 보도를 모두 중점적으로 다뤘고, 개인 채널들의 경우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제기'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많이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유튜브 개인 채널들은 절반이상이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처를 밝힌 채널들은 31%에 불과하였고, 약 50%의 채널들이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언론보도를 자신의 콘텐츠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인 유튜버들의 언론사별 뉴스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가 크게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개인 채널들은 1차, 2차인용 매개로 일간지 뉴스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인용된 언론사들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닷컴, 한국경제 등인 것으로 나타나 보수적 성향의 개인 유튜버 채널들이 보수 성향의 일간지 보도를 많이 인용함으로써 뉴스의 확산과 유통에 일조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 채널들의 언론 보도 전달 방식은 주장 또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 동영상이 60%가 넘었으며, 정치 성향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전체 개인 채널의 83%를 차지함으로써 정치적 성향과 전달 방식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성향의 채널들 역시 주의 및 주장전달이 60%가 넘어 정치적 성향과 뉴스콘텐츠 전달 방식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튜브에서 저널리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독자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는 개인 유튜브 정치채널들은 대부분 일간지를 통해 뉴스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들은 뉴스정보를 별도로 취재하여 정보를 선택하거나, 여과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통 저널리즘의 뉴스생산 관행과 저널리즘 규범 및 가치를 기반으로 뉴스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이슈의 확산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 문제를 제기한 <SBS 뉴스>의 동영상이 조회 수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내 원전은 폐기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추진하는 이적행위'를 보도한 <TV조선>의 동영상이 주목을 받았고, <진성호 방송> 같은 보수 성향의 개인 채널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널은 '정부의 사전지시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

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강조했다. 동영상의 출처별로 살펴보면, 보수 종편채널과 개인 채널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이용자의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별 그룹 분석 결과를 보면, 보수적 성향의 종편, 개인 채널이 정부의 원전 파일 삭제를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채널은 야당의 공격을 반박하는 내용을 다뤘다.

한편,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팩트체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 채널은 개인 채널처럼 단순 의혹을 제기, 주장하는 차원에 머물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부 보수 종편 채널의 동영상 경우, 사건을 요약하는 헤드라인 대신, ‘이적행위?,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고 했다?’와 같이 정부를 비판하는 정보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헤드라인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하였다. 특히 몇몇 개인 채널들은 북한 원전 추진을 사실로 단정 짓고 정부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생산했으며, 자신의 주장들을 자극적으로 전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 성향이 양극화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류 저널리즘에서 작동하던 정치 병행적 언론-취재원 관계가 유튜브 플랫폼으로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파적인 혹은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수록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루머가 여과되지 않는다면 공중의 정보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연구 결과로는 유튜브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보수 성향의 개인 채널은 SBS에서 제기한 의혹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이차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수 종편채널은 삭제된 파일 내용 보도에서도 팩트 체크보다는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 제기에도 더 방점을 두는 보도들이 많았다. 출처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격이 다른 생산자가 공존하는 유튜브에서 이용자들은 언론사 채널과 보수 종편채널, 개인 보수 채널을 상호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혹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상 동영상 헤드라인은 이용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므로 언론사 채널과 개인 채널은 경쟁적으로 헤드라인을 선정적, 자극적으로 작성했으며, 특히 개인 채널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확산시켰다. 그 배경에는 유튜브가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이용자의 정보 통제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매체이므로(Deuze, 2003), 정보 생산의 주체가 정보생산 과정에서 높은 자율성을 발휘하고, 전통 언론사와 달리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김춘식·홍주연, 2020).

종합하면, 언론사의 쟁점보도와 보수 종편의 의혹제기보도, 개인 채널의 의혹을 사실로 규정하는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은 걸잡을 수 없이 확산

재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언론사 보도에서 제시한 ‘의혹’이 개인 채널의 주장을 통해 ‘사실’로 여겨지고 확산되는 현상은 공론장에서 언론의 사회적 의제설정과 수문장 역할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튜브 뉴스는 제휴 심사를 받은 기성 언론 중심의 포털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있다. 이용자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수 있어서 유튜브에서 사실상 언론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나 논객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 중에는 편향적이거나 일방적인 주장과 음모론을 담은 콘텐츠를 양산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금준경, 2018, 50쪽). 이러한 상황은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갖는 접근성과 정보 유통의 편리함으로 많은 이용자의 참여와 정보 소비를 끌어냈다. 특히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뉴스의 경우,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정보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뉴스보도의 관행과 이분법적 정치이념을 더욱 넘어서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저널리즘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언론사와 개인 채널들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 보도의 내용 분석을 실시했으나, 주요 보도 내용이 외에 언론사 채널들의 인용 방식과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석하지 않고 개인 채널 중심으로 인용 매체와 전달 방식, 정치 성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의 헤드라인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봤으나, 동영상 출처별로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헤드라인의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셋째, 노드엑셀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대상 유튜브를 500개로 제한했는데, 유튜브 동영상 수를 더 늘렸다면 채널의 출처별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이 연구는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을 밝히고자 했으나 유튜브 저널리즘을 논의하려면 일간지를 포함한 여러 매체의 영향력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특정 이슈에 대한 수용자 뉴스 이용 매체, 뉴스 이용 기록을 근거로 의제설정과정에서 어떤 매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보면 유튜브 저널리즘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전통적인 언론사들과 개인 채널들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정치 뉴스를 어떻게 생성 및 확산시키고 있으며, 또 개인 채널들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치적 성향과 전달 방식의 연관성과 역동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 연구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유튜브 내 뉴스 채널의 정치이념은 자극적일수록, 북한 관련 뉴스 보도의 관습을 충실히 따를수록, 높은 조회수를 보였고, 동영상 영향력도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oi Min Jae, Yang Seung Chan (2009). *Internet Social Media and Journalism*,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Choi Suhk Man, Kook Min Ho, Park Tae Jin, Han Kyu Suhk (1990).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Types of Liberal and Conservative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Winter 24, 83-102.
- Gerring, J. (1997). Ideology: A Definitional Analysi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0(4), 957-994.
- Gillmore, D. (2005). The end of objectivity (version 0.91), Dan Gillmor on Grassroots Journalism, etc. <http://dangillmor.typepad.com/dangillmorongrassroots//2005/01.5>
- Ha Joo Yong, Hong Won Shik, Yoo Soo Jung (2019). <The Rising of Social Platforms and News Production Strategies>,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Hansen, D.L., Shneiderman, B. & Smith, M.A. (2011). *Analyzing Social Media Networks with NodeXL: Insights from a Connected World*, MA: Morgan Kaufmann.
- Hong Joo Hyun, Seol Jin Ah, Lee Jong Im (2021). Diffusion of Disinformation on The You Tube Network about Chinese Covid-19: Based on Influential Spreaders and Types of Inform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2), 652-668.
- Hong Joo Hyun, Sohn Young Joon (2017). Korean Media Partisanship in the Report on THAAD Rumor : Network and Frame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ssue 84, 152-188.
- Hwang Yong Suhk, Kwon Oh Sung (2017).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Regulation Measures on Fake News – Focused on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16(1), 53-101.
- Jarvis, J. (2006). Networked Journalism, Retrieved from <http://www.buzzmachine.com/2006/6/guzzmachine.com/2006>.
- Joo Chang Yoon (2000).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on North Korean Reporting. <Seminar on Korea Association of Journalism >. August 2000. 3-27.
- Jung Chul Woon. Fake News and Extreme Conservatism on Youtube Journalism. *People and Ideologies*, Issue 247, 168-183.
- Jung Jae Chul (2009). A Study on South Korea reporters reporting North Korea issues: Focusing on KBS and MBC. <Korea Press Foundation> Issue 48, 135-152.

- Jung Jung Joo, Kim Min Jung, Park Han Woo (2019). "Big Data Analysis and Modeling of Disinformation Consumption and Diffusion on YouTube". *Social Science Discourses and Policy*, 12(2), 105-138.
- Keum Joon Kyung (2018). Youtube and Online Journalism. *Press Arbitration*, Issue 149, 48-57.
- Kim Chang Sook, Min Young (2021). The 2020 parliamentary election and YouTube journalism: An analysis of the fairness and quality of election videos on the YouTube channels of major broadcasters and political influencer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22(2), 130-166.
- Kim Chun Sik, Hong Juhyun (2020). How Fake News Become 'Real' News on Youtube: A Case Study of Political Propagandization and Reaction Among Political Actors Related to the Gosung Wildfir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23(2), 403-439.
- Kim Kyung Hee, No Ki Young (2011). A Comparative Study of News Reporting about North Korea on Newspapers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55(1), 361-387.
- Kim Mi Kyung (2019). The Effect of Social Communication Behavior Depending on News Credibility, News Involvement, Confirmation Bias: focusing on the difference of user's effect of fake news and fact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Studies*>, Issue 52, 5-48.
- Kim Soo Mi (2019). Regarding the truth in/about the 'post-truth' era : A view on journalism and the politics of truth. *Journalism and Society*, 27(4), 49-103.
- Kim Sung Tae, Lee Chang Ho (2007). A Study on the Media Coverage of Public Issue: Focusing on Drinking-Water Issues.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Fall Vol, Issue 39, 40-68.
- Lee Choong Hwan (2013). <The Factuality of Journalism>. Seoul: Communication Books.
- Lee So Eun, Park Ah Ran (2020), Biased News Use and the Downfall of the Press. <Digital News Report 2020> Media Issue, 6(3), 1-8.
- Lee So Eun, Oh Hyun Kyung (2021). Evaluation of News Media and News Use by Media Outlet, Companies, and Topic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Users' Political Orientation. *Korea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5(2), 241-285.
- Lewis, W. (2009). "Social Journalism: Past, Present, and Future." Mashable. N.p., 7 Apr. 2009. Web. 21 Oct. 2009.
- Lim Young Ho, Kim Eun Mi, Kim Kyung Mo, Kim Yae Ran (2008). News Perceptions and Uses among Online-News Users, *Korea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2(4), 179-204.
- Ma Jung Mi (2020). A Study on YouTube Journalism and Public Sphere. *Journal of Korean Communication*, 19(1), 217-246.

- Min Young, Lee Hoon, Yoon Ho Young, Kim Ji Won (2020). Youtube and the General Election.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 Nielsen, R. K. (2019).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9.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Oh Sae Ook (2019). The Media Landscape of Youtube based on Algorithms. *Kwan Hoon Journal, Spring Volume 150*, 11-17.
- Panizza, F. (2005).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London: Verso.
- Park Ah Ran, Yang Jae Kyu, Oh Hyun Kyoung (2019). Global Media Platform and News. Korea Press Foundation, Research Paper 2019-03.
- Pyo Shi Young, Jung Ji Young (2020). The Form and Content of Fake News, and Public-Opinion Form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Risk Factor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27(4), 25-62.
- Ryu Yong Min (2019). Debating the phenomenon of YouTube journalism : The rise of activism in journalism field and trans-boundarization of journalism. *Journal of Korea Broadcasting*, 33(6). 5-38.
- Ryu Yong Min (2021). An Explanatory Study on News Perception of YouTube Current Affairs and Political Channel Us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4), 628-644
- Schudson, M. (2003). *The Sociology of new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Seol Jinah (2017). <Social Media>. Seoul: KNOU PRESS.
- Shoemaker, P.J. & Reese, S.D.(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Second Edition
- Sohn Young Joon, Hong Joo Hyun (2019). Newspaper Frame Analysis on the Nuclear Crisis in Korean Peninsula: Using the Kyung Hyang, Han Kyeo Rae, Chosun and Dongah Platforms.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22(3), 175-210.
- Xu, W.W., Park, J. Y., Kim, J. Y. & Park, H. W.(2016). Networked Cultural Diffusion and Creation on YouTube: An Analysis of YouTube Mem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60(1), 104-122.
- Yang Hyung Mo, Park Joo Yun (202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Content Production on YouTube by Newspaper Journalists. <Communication Studies> Vol. 28-1, pp. 33-59.
- Yang Moo Jin (2020). North Korea Fake News: Type, Distribution, and Counterplan.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23(2), 90-122.

Yang Sun Hee (2020). Reality and Challenges of Traditional Journalism in the Era of YouTube Journalism.
Journal of Social Science, 31(1), 245-262.

최초 투고일 2021년 6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1년 12월 01일
논문 수정일 2021년 12월 07일

부록. 참고문헌

- 김준경 (2018). 유튜브와 온라인 저널리즘. <언론중재>, 149호, 48-57.
- 김경희·노기영 (2011). 한국언론학보,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55권 1호, 361-387.
- 김미경 (2019). 뉴스신뢰도, 뉴스관여도와 확증편향이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가짜뉴스와 팩트뉴스 수용자 비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2호, 5-48.
- 김수미 (2019). “포스트-진실” 시대의 진실에 대하여. <언론과 사회>, 27권 4호, 49-103.
- 김성태·이창호 (2007). 공적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수돗물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가을 통권 39호, 40-68.
- 김창숙·민영 (2021). 2020년 총선과 유튜브 저널리즘: 방송사 채널과 인플루언서 채널 선거 동영상의 공정성과 품질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2권 2호, 130-166.
- 김춘식·홍주현(2020). 유튜브 공간에서 ‘가짜뉴스의 뉴스화’: <고성산불> 관련 정치적 의혹제기와 청와대 반응 사례연구. <정치정보연구>, 23권 2호, 403-439.
- 마정미 (2020). 유튜브 저널리즘과 공론장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19권 1호, 217-246.
- 민영·이훈·윤호영·김지원 (2020). <총선과 유튜브>.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아란·양재규·오현경 (2019).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2019-03.
- 설진아 (2017). <소셜미디어>. 서울: KNOU PRESS.
- 손영준·홍주현 (2019).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신문 사실 프레임 비교 분석: 경향·한겨레·조선·동아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치정보연구>, 22권 3호, 175-210.
- 양무진 (2020).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형, 유통과 대응방안. <현대북한연구>, 23권 2호, 90-122.
- 양선희 (2020).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전통적 저널리즘의 대응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245-262.
- 양형모·박주연 (2020). 신문기자의 유튜브 1인 방송 콘텐츠 생산의 특징과 저널리즘 역할 인식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8권 1호, 33-59.
- 오세욱 (2019). 알고리즘으로 본 유튜브의 미디어 지향. <관훈저널>, 봄호(통권 150호), 11-17.
- 유용민 (2019).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 논쟁하기: 행동주의의 부상과 저널리즘의 새로운 탈경계화. <한국방송학보>, 33권 6호, 5-38.
- 유용민 (2021).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의 뉴스 관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4호, 628-644.

- 이소은·박아란 (2020). 편향적 뉴스 이용과 언론 신뢰하락. <Digital News Report 2020> Media Issue, 6권 3호, 1-8.
- 이소은·오현경 (2021). 매체 언론사, 주제별 뉴스 이용과 언론에 대한 평가: 이용자 정치성향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권 2호, 241-285.
- 이충환 (2013). <저널리즘의 사실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영호·김은미·김경모·김예란 (2008).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뉴스관과 뉴스이용.”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179-204.
- 전혜인 (2021, 5, 11). 표현의 자유 막는 국가보안법 폐지돼야..국민동원청원 시작. <디지털타임스>. URL: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1002109932078019&ref=naver
- 정민경 (2020, 5, 2). 김정은 나타난 날도 건강이상설 보도한 조선·동아. <미디어오늘>. URL:<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83>
- 정재철(2009). 남한 방송의 북한 보도 생산자 연구: KBS와 MBC 북한 문제 담당기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8호, 135-152.
- 정정주·김민정·박한우(2019). “유튜브 상의 허위정보 소비실태 및 확산 매커니즘 생태계 연구: 빅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2권 2호, 105-138.
- 정철원(2018). 가짜뉴스 유튜브 극우보수와 저널리즘. <인물과 사상>, 247호, 168-183.
- 주창윤(2000). 북한 관련보도의 반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방송영역. 한국언론정보학회세미나, 2000년 8월, 3-27.
- 최민재·양승찬(2009).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 서울: 한국언론재단.
- 최석만·국민호·박태진·한규석 (1990).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겨울호), 83-102.
- 최진웅(2019).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NARS 현안 분석>, 70호.
- 표시영·정지영(2020). 가짜뉴스의 형식적·내용적 특징과 여론 형성력: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7권 4호, 25-62.
- 하주용·홍원식·유수정(2019). <소셜 플랫폼의 부상과 동영상 뉴스 생산 전략>,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기자협회(2021, 3, 20). ‘기레기’댓글 무죄 판결, 무엇을 말하나. URL:<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123>
- 황용석·권오성(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16권 1호, 53-101.

홍주현·손영춘(2017). 사드루머(THARD rumor)보도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정파성: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4호, 152-188.

홍주현·설진아·이종임(2021).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 중국관련 허위정보 확산에 관한 연구: 확산주체와 정보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2호, 652-668.

유튜브 뉴스채널의 '북한원전 건설 의혹' 관련 보도 연구 언론사 채널과 개인채널 뉴스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설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종임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홍주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포스트-진실'의 시대라 불리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 플랫폼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실과 거짓 정보의 구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생산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이 공문장에서 언론의 수문장 역할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한 정치 뉴스를 중심으로 유튜브 언론사 채널과 개인 채널들이 생산 주체에 따라 어떤 메시지를 생산하고, 확산 주체가 누구이며, 주요 쟁점이 어떤 양상으로 확산하는지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채널 출처별로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을 분석하고, 어떤 메시지를 생산하는지 살펴보았으며, 뉴스 관련 콘텐츠 생산 채널로서 주류 언론사와 개인 채널의 역학관계와 뉴스 전달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언론사의 쟁점 보도가 보수 종편의 의혹 제기과 개인 유튜버 채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면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은 크게 확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튜브 개인 채널들이 생산하는 정보가 이분법적이고 정파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상파 뉴스는 비교적 '중립적' 입장의 뉴스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언론 보도의 의혹 제기가 개인 채널의 주장을 통해 사실로 여겨지고 확산됨으로써 유튜브 저널리즘의 부정적인 단면을 함축한다.

핵심어 :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 유튜브 저널리즘, 정치이념, 소셜 미디어, 정보원